



DREAM BLOSSOM



Dream Blossom Academy

고상희·김종문·송지수·신현빈·이보림·정민우·정문성·
정상범·정수영·최병철·최재훈·하태수·홍영훈

협력작가

김시하·노세환·방은겸·양수형·원지호·
정승·최성록·한경은·해미 클레멘세비츠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관장 정진옥
사업단 안영환·김솔림·김민주

토탈미술관

관장 노준익
책임 큐레이터 신보슬
코디네이터 이태성
인턴 정수연
디자인 손혜인
영상 최윤석

**Introduction**

글. 신보슬

하나. 어딘가로 봉사활동을 간다거나,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인생을 걸고 해야 한다는 이상한 강박이 있었다. 하다 그만 둘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 낫다는 편리한 핑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수 없는 이상하게 꼬인 양심에 그저 가장 게으르고 쉬운 방식으로 기부금을 내는 방식을 택했었다. 그래도 뭔가를 한다는 알량한 자기변명. 하지만 매주 화요일, 수요일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만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핑계였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둘. 자폐성 장애 참가자들과는 의사소통이 어렵다. 첫 수업 날. 두 시간이 채 안 되는 그 수업이 네 시간 대학 강의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듦은 조금씩 작아진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곁에 앉아 참가자들의 그림을 보며 기다려주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그 역시도 우리의 대화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다. 비장애인들끼리도 서로를 이해하거나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리 다르지도 않은 것 같다.

셋. 이제는 참가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한다. 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말라는 염려도 한다. 다른 일정이 있어 수업을 빠지게 되면, 마음이 무겁다. 수업직전 참가자들이 오늘은 어떤 새로운 면을 보여줄까 설레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새삼 느끼게 되는 건, 내가 이 사람들을 평생 만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다르지 않은 우리들이 사회시스템 안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다는 건, 참 무서운 일이다.



SECTION 01

속보이는 텐트



SECTION 02

소리나는 달



SECTION 03

화분과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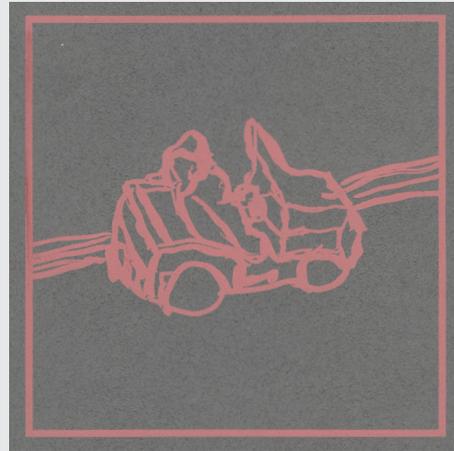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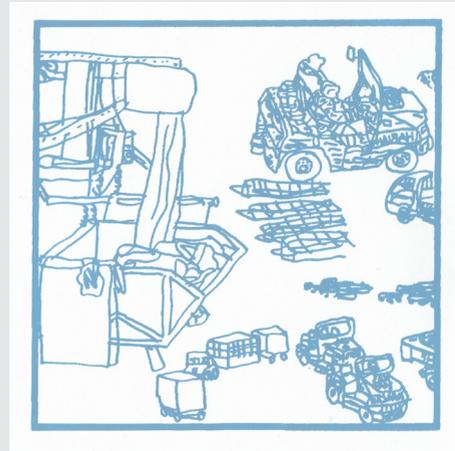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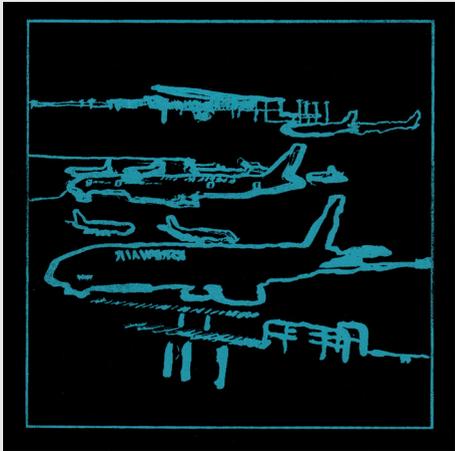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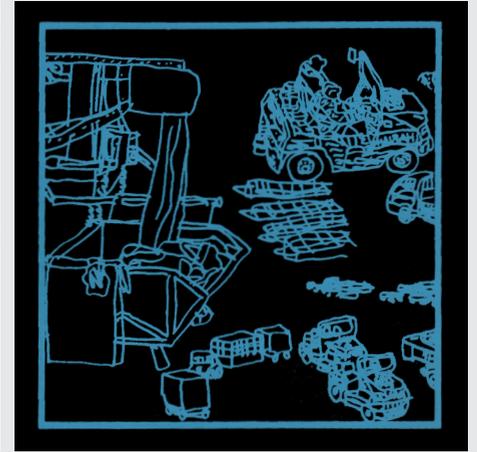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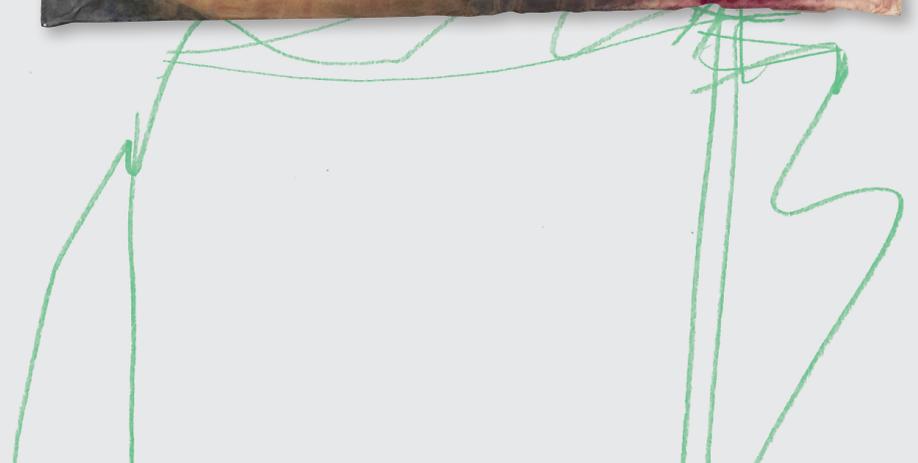
SECTION 04

큐레이팅 연습 - 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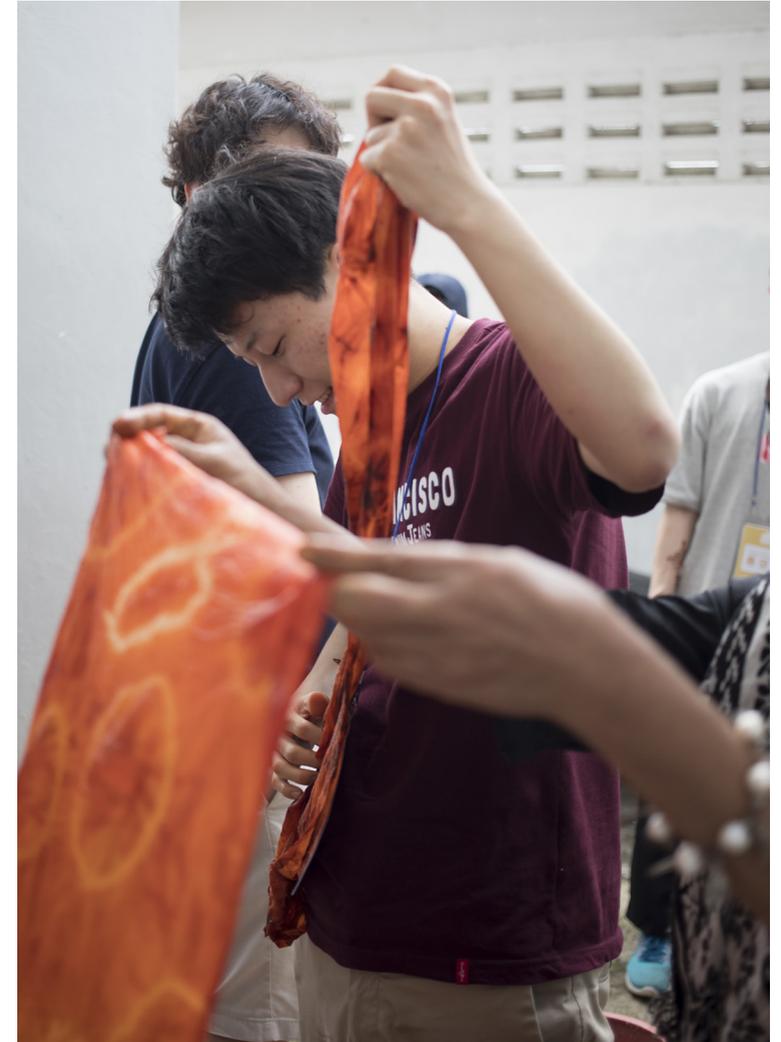




SECTION 06

바틱 전시회
말레이시아





DREAM BLOSSOM



주관·주최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함께, 태양을 만끽아가는 복지공동체 구현

지원



아산사회복지재단
Asan Foundation

협력



서울특별시중구청



한국기독교선교사회 Caritas Korea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